

# 1

## 연줄과 청탁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

공무원 집 딸, 선생 집 아들	19
명절 떡값 돌리던 풍경	23
'돈 줄 자격'	30
'거절할 명분'	41
다수의 선한 사람을 악에서 구하는 방법	48

# 2

## 권력형 부패

권력은 뒷돈 없이 살 수 없는가?

엘리트 카르텔 신드롬을 넘어	69
청렴하고 무능한 공무원 vs 부패하고 유능한 공무원	81
권력형 부패, 청탁이 핵심고리	84
무슨 일을 해도 문제없으리라는 착각	91
의사결정 공개로 부패를 막는다	95
금융거래 공개, 관리냐 통제냐	100
너무 쉽게 용서받는 문제	106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인사검증 중심으로	109
깨진 유리창을 모두 갈아 끼울 수 있을까?	113
거짓을 고백하고 새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	119

# 3

## 정치자금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125
대의를 위해서는 받아도 된다?	129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135
정치자금 개혁, 규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	138
규제완화보다 투명성 확보가 먼저	142
측근 관리 못하는 리더는 자격 없다	164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가?	170

#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 4

무조건 기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183
도둑 잡는 검찰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사연	187
수사지휘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97
중수부 폐지하면 '라인'이 사라질까?	205
제3의 기구가 멋진 대안이 되려면	211
국민에게도, 검찰에도 유리한 게임	225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면	236

# 5

# 근본적 처방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

부패의 근원, 연줄문화	247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255
합법적 청탁자, 로비스트는 필요한가?	259
대가 없는 돈은 없다	271
사적인 이익과 거리 두기	281
여자여서 만들 수 있었던 법?	287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296

# 6

##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명예 가진 사람은 부를 욕심내면 안 돼

305

낙하산 인사 없애는 해법

314

약속은 지킨다는 게 트레이드마크니까

317

리더십이 부패의 토양을 결정한다

320

부패를 뿌리 뽑을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322